

봄 깊은 대간마루... 흐드러진 꽃물결



(13)

황악산 → 추풍령

심장 박동만 있을 뿐 모든 운동 기능이 정지된 사람을 일러 '식물인간'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과 식물 모두에게 중대한 결례다. 사람됨의 기준을 식물의 불박이상에 빗댄 것도 그렇거니와, 식물의 속성을 광물질과 같이 고정된 면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모든 식물을 한 그루 혹은 한 포기 단위로 볼 때나, 화병의 꽃을 두고 말할 경우에만 옳다. '술'은 보지 않고 오직 '나무'만 바라봤을 때나 옳은 말이다. 굳이 과장하여 민들레 홀씨의 화려한 비행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식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갇힌 사람들의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식물의 움직임이란, 한 알의 씨앗이 숲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같은 거대한 흐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낮과 밤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변하는 숲의 표정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러한 변화 양상은 시계의 시침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봄 깊은 날 산에 들면, 약간의 인식 전환만으로도 숲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숲 속에서, 참나무 숲에서, 혹은 진달래 무더기 속에서, 담았으니 똑같은 것은 그 모습들에서, 한 알의 씨앗나 도토리나 숲을 이루어가는 거대한 물질을 느낄 수 있다.

목련과 진달래가 봄만큼 채비에 한창이고, 고로쇠나무들이 수액을 빨아올리느라 부산한 황악산의 농여계곡을 거슬러올라, 다시 백두대간의 마루에 선다. 왼쪽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서면 여촌저수지 방향이고 오른쪽으로는 직지사 운수암이 지척인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저 멀리 충청도 보은 땅의 속리산을 이 루기까지,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몸을 낮추어 고안고만한 봉우리들을 이끌고 간다. 그런 만큼 그 어느 곳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부산한 곳이기도 하다.



▶봄이리랄처럼 보송보송한 노란 꽃을 피워올리는 생각나무. 꽃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꺾어 보면 짙은 생각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본 경부고속도로의 야경.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추풍령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고갯길이지만 본래의 추풍령은 예나 지금이나 한적하다.

고승 풍모 닮은 덕스러운 황악산 뒤로하고 건다가 꽃 보고 꽃 보다 쉬어가는 봄 산행

충청북도 영동군과 경상북도 김천시를 잇는 977번 지방도로 위에 있는 이 고갯길은, 지금이야 한가로운 사골길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의 두 다리가 주요 교통수단인 시절에는 꽤나 시골벽적인 고갯마루였다고 한다. 이 고개는 관로(官路)로 쓰이던 추풍령과 달리 일반인들이 즐겨다니던 상로(商路)였다. 더욱이 '발이 씨가 된다'고 믿는 이른바 '언령의식(言靈意識)'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서, '추풍낙엽(秋風落葉)'을 연상시키는 추풍령을 넘기가 벅직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고개를 이용했을 것이다. 특히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급제자들의 이름이 나붙는 '방(榜)'이라는 글자에 더욱 집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도 그대로 다 믿기는 힘든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괘방현(卦方峴)'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추풍'이나 '괘방'이라는

말의 어감에 따른 후세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오늘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이 고개는 암진왜란 때 박이룡이라는 의병장이 퇴각하는 왜군에게 혼저갱을 내 준 곳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지금은 추풍령에 밀려 이름도 희미해진 곳이지만, 영동과 김천을 오가는 요긴한 교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김천에서 추풍령을 향하다 직지사 길로 접어들어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괘방령이다.

괘방령을 지난 백두대간은 가파르진 않지만 긴 오름길을 이루며 가성산을 향한다. 파스한 햇빛에 꽃샘바람이 그리 싫지 않은 요즘 같은 때는, 건다가 꽃 보고 꽃 보다 쉬어가고 한두 시간이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꽃샘바람이라는 것도 편한 시샘이란 볼 일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나뭇함을 거두어 가고, 꽃들에게는 흐드러지게 피었다 순식

간에 지지 말라는 배려의 손길일지도 모르므로.

가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비껴산 산줄기 끝에서 바라본 황악산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온 황악산의 모습 중 가장 근사하다. 덕스러우면서도 기운차고, 우뚝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그 모습은, 높아서 오히려 낮아보이는 고승의 풍모와도 같아서, 과연 직지사라는 대찰이 깃들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가성산 정상에서 직척으로 보이는 놀외산 정상까지도 그리 힘들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장군봉(600m)이 걸터앉아 있으므로 근육의 긴장을 마냥 풀 수는 없다. 오른쪽으로 김천 공원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성산과 장군봉 사이의 골짜기가 워낙 깊기 때문이다.

대간 마루 어디에도 무덤은 없지만 장군봉을 오르는 길 이곳저곳에는 유독 무

덤이 많다. 산 사람에게 편안한 산은 죽은 사람에게도 편안해서일까? 아니면 평당을 찾을 형편이 못되는, 그렇고 그런 가문의 후손들이 백두대간에 기대어 발북에 보려는 심사 때문에서일까?

장군봉을 넘어 제법 높다란 봉우리 하나를 또 넘으면 넓다란 절기장이 깔려 있는 놀외산(743.3m) 정상이다. 이곳에서는 띄어내리면 한달음에 닿을 듯 추풍령이 발끝에 걸린다. 동쪽으로는 추풍령 휴게소가, 길에서 만나면 반가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동북쪽으로는 추풍령면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심의 번잡이 싫은 나머지, 배낭을 꾸리면서부터 꽃노래로 시작되는 산행이건만, 행일인지 바빠 추풍령을 넘나드는 차를 보니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동한다. 참으로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더니 딱 그렇다.

놀외산을 내려와 추풍령이라는 고갯길을 내어준 백두대간은, 형세도 희미할 뿐 아니라 등성에도 조금은 애매하다. 골짜기에 가까이 보일 정도로 몸을 풀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4번 국도상의 본래 추풍령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의 등배로서 그리고 분수령으로서의 본래 모습은 읽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서쪽의 물은 모두 금강으로 흘러보내고 남동쪽의 물은 모두 낙동강을 살피우게 하는 분수령의 구실을 분명히 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도 차고 넘은 바람도 쉬고 가는"으로 시작되는 가수 남상규의 노래로 이 고개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추풍령은 그런 고개도 아니다. 오늘날이야 백두대간을 넘는 유일한 고속도로(대관령을 넘는 영동고속도로는 국도와 혼란 구간이다)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가장 바쁜 고갯마루이지만, 높이야 200m 남짓인데다 나그네들도 쉬어가는커녕 행하느라 스쳐가는 그런 고개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추풍령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세간의 오해가 있다. 그 얘기는 다음 차례에 이야기기로 한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연꽃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광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일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일등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일등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일 ■ 등통 + 비단 연일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 빨강 · 노랑 · 연분홍

■ 공단(비단) 연일등 완성과정

디자인 대구어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인사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경기도 하남시 훈궁동 180-1

불자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의외행사용

규격: 등간격: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요
모델: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 작업성 ·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친환경배선

- 일일이 파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문의: (032)582-6235~6
080-5826-23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대원기업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